

'책 읽는 대한민국' 을 위한 독서진흥정책 시급

# 책 읽는 대한민국, 당신에게 달려있다!



글\_ 권경상국립중앙도서관 관장

##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이 필요

지식과 정보, 문화가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오늘날, 국민들의 지적 능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함양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독서이다. 독서는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언어 발달을 돕고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정서를 함양하여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뜻있는 민간단체들이 기울여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서 실태와 환경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 환경이 변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포괄적인 독서 진흥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텍스트 중심의 독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에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로 인해 계층간·지역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들은 정부나 독서 관련 민간단체,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총체적

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개인의 독서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

국민 개개인의 독서 활동은 스스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길러 나가는 것이므로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따라서 독서 진흥 정책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독서권을 침해하는 하등의 규제를 두어서는 안 된다. 또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최대 범위에서 독서 자료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문제로 독서 활동에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독서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독서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독서 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우선 국가의 독서 정책 이념을 규명하고, 도서관 중심의 독서 진흥 정책과 출판 진흥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독서 진흥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중·장기 독서 진흥 사업의 추진 과제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독서 진흥 운동을 전개한다. 정부 관련 부처와 도서관 독서 진흥 담당자, 독서 관련 민간 단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학교 교사 등으로 '범국민 독서진흥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사업의 방향 설정, 각 부문의 역할 배분과 조정 등 다양한 국민 독서 진흥 사업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지식 시대, 문화의 시대, 평생 학습 시대를 맞아 정부 부문부터 지식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책 읽는 정부'가 되어, 국민들에게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책 읽는 정부'임을 선언하고 정부의 책 읽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간다.

둘째, 독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서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취약한 도서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계속 늘려 나가는 한편, 2008

넷째, 장애인 등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 환경을 개선한다. 문화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공간 및 시설을 개선하고 독서 자료를 보급하여, 소득 차이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간다. 또 독서 장애인(시각 장애인, 노령층 등)용 특수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독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독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대적인 독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기존의 일회적 캠페인이 아닌, 독서 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독서 생활화 공간인 가정에서의 독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소외 지역

*독서 진흥을 위해 수많은 논의와 구체적 실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시 독서 진흥을 국가적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독서 생활화가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생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년까지 150개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서관 등 독서 문화 공간 내의 이용 시설과 독서 자료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 관련 이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모범적인 독서 활동 및 독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우선 독서 진흥 활동과 독서 문화 공간 조성 등에 기여한 독서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는 '독서문화상'과 같은 시상제도도 계속 추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독서 기업 대상', '우수 독서학교' 지정, '우수 학교도서관' 선정 같은 독서 진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상제도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미국의회도서관의 '도서센터'(The Center for the Book)와 같이 독서 활동을 지원할 부서를 두어 효과적인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가정 등에 읽을 만한 책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책 구입 예산을 지원하여 책 읽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출판 산업의 활성화,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이전에도 독서 진흥을 위해 수많은 논의와 구체적 실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시 독서 진흥을 국가적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독서 생활화가 지식 정보화시대에서 생존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힘을 모아 독서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기업, 책 읽는 정부를 만들어 낼 때 '책 읽는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